

마르코 복음서 15장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다(마태 27,1-2.11-14; 루카 23,1-5; 요한 18,28-38)

- 1 아침이 되자 수석 사제들은 곧바로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 곧 온 최고 의회와 의논한 끝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 2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시오?” 하고 묻자, 그분께서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 3 그러자 수석 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하였다.
- 4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보시오, 저들이 당신을 갖가지로 고소하고 있지 않소?” 하고 물었으나,
- 5 예수님께서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¹⁾

1) 당시 유다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으므로 로마 총독의 판결이 필요하였다. 특히 사형의 경우 그러하였다. 그래서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것이다.

2) 마태오 복음서 27,1-2 ; 11-14 해설 참조.

사형 선고를 받으시다(마태 27,15-26; 루카 23,13-25; 요한 18,38L—19,16 7)

- 6 빌라도는 축제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 주곤 하였다.
- 7 마침 바라빠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때에 살인을 저지른 반란군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다.
- 8 그래서 군중은 올라가 자기들에게 해 오던 대로 해 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 9 빌라도가 그들에게 “유대인들의 임금을 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오?” 하고 물었다.
- 10 그는 수석 사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 11 그러나 수석 사제들은 군중을 부추겨 그분이 아니라 바라빠를 풀어 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 12 빌라도가 다시 그들에게, “그러면 여러분이 유대인들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오?” 하고 물었다.
- 13 그러자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거둡 소리 질렀다.
- 14 빌라도가 그들에게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하자,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1) 사도 8.32 :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러하였다. “그는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갔다. 털 깎는 사람 앞에 잡자코 서 있는 어린양처럼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15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빠를 풀어 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 1) 페르시아에서 유래하는 사형 제도인 십자가형을 카르타고인들도 받아들이고, 마침내 로마인들은 절도, 살인, 반역, 반란을 처벌하는 가장 잔혹하고 수치스러운 체형으로 이용하였다. 이 형은 로마 시민에게는 적용될 수 없었다. 팔레스티나에서는 대(大) 헤로데 임금의 죽은 뒤, 로마의 특사 비루스의 명에 따라, 이전 명에 달하는 반란군이 십자가형을 받기도 한다. 기원후 7년, 갈릴레아 사람 유다 역시 반로마 운동을 일으킨 대가로 같은 형을 받는다. 군중은, 반란군에게 가하는 형벌을 내리고, 반란군인 바라빠에게는 자유를 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²⁾
- 2) 로마의 관습에 따라 십자가형에 처하기 전에 먼저 채찍질을 한 것이다.³⁾
- 2) 마태오 복음서 27,15-26 해설 참조.

군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다(마태 27,27-31; 요한 19,2-3)

16 군사들은 예수님을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관저였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17 그분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얹어 머리에 씌우고서는,

18 “유대인들의 임금님, 만세!” 하며 인사하기 시작하였다.

19 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절하였다.

20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겹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 1) 자주색 의복, 관,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은 임금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조롱이다.
- 2) 마태오 복음서, 27,27-31 해설 참조.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마태 27,32-44; 루카 23,26-43; 요한 19,16L-27)

21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키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

22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타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는 번역하면 ‘해골 터’라는 뜻

2) 주석 성경, 마르코 복음서, 115쪽, 각주 8.

3) 주석 성경, 마르코 복음서, 116쪽, 각주 10.

이다.

- 23 그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 24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겹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다.
- 25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아홉 시였다.
- 26 그분의 죄명 때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라고 쓰여 있었다.
- 27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 28 .
- 29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이렇게 모독하였다.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더니.
- 30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 보아라."
- 31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 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 32 우리가 보고 믿게,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 1) 사형수는 자기의 형구, 십자가의 가로대만이라도 지고 가야 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너무 쇠약한 경우에는, 지나가는 사람을 징발할 수가 있었다. 시몬의 신원을 밝히는 것은, 그의 아들들이 초대교회에 잘 알려져 있음을 뜻한다.⁴⁾
- 2) 마태오 복음서 27,32-44 해설 참조.

숨을 거두시다(마태 27,45-56; 루카 23,44-49; 요한 19,28-30)

- 33 낮 열두 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 34 오후 세 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는 번역하면,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이다.
- 35 곁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네." 하고 말하였다.
- 36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라고 갖다 대며,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 37 예수님께서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 38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4) 주석 성경, 마르코 복음서, 116쪽, 각주 14.

- 39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 보고 서 있던 백인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하고 말하였다.
- 40 여자들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마리아 막달레나,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 41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래아에 계실 때에 그분을 따르며 시종들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 1) 백인대장은 사형 집행의 책임자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자세히 목격하였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못 받은 자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 소리를 들었고, 강도가 회개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세 시간 동안이나 온 땅이 캄캄해지는 징조를 보았을 것이다. 그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는 소리도 들었고,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위탁하는 것도 들었고 성전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모든 일들을 본 백인대장은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라고 고백한다. 신앙고백이다.
- 2) 신앙인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백인대장과 같은 신앙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3) 마태오 복음서 27,45-56 해설 참조.

문하시다(마태 27,57-61; 루카 23,50-56; 요한 19,38-42)

- 42 이미 저녁때가 되어 있었다.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
- 43 아리마태아 출신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당히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 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열심히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 44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돌아가셨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인대장을 불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느냐고 물었다.
- 45 빌라도는 백인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요셉에게 시신을 내주었다.
- 46 요셉은 아마포를 사 가지고 와서, 그분의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 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시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러 막아 놓았다.
- 47 마리아 막달레나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분을 어디에 모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 1) 유대인들에게 하루는 해가 지는 것과 함께 시작된다. 안식일 전날에는 뒷날에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여 안식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 2)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사형에 처한 이들은 해가 지기 전에 묻어야 했다. 밤이 다가오고 안식일이 시작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일을 서둘러야 했음을 암시한다.
- 3) 마태오 복음서 27,57-61 해설 참조.